

12. 호세아 12 장,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 들어가기

오늘 살펴보는 호세아 12 장은, 자신들은 야곱의 후손이라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한 상태를 책망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에브라임과 남유다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1-6 절)

1) 먼저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며, 앗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바치며 섬긴다고 책망하셨습니다. (1 절)

- 우선 '바람'에 해당하는 히/원 = ‘루아흐’ 라는 말로 ‘헛되다, 공허하다’는 뜻!
-> 곧 당시 에브라임(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앗수르와 애굽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저들과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며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말씀!
- ‘동풍을 따라 가서’란 말은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동풍'은 동쪽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불어오는 모래 바람으로, 심할 때는 곡물은 물론이고 사람과 집, 심지어 지중해의 배들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바람!! (욥 27:21, 시 48:7, 욘 4:8, etc.)
-> 곧 ‘동풍을 따라 가서 거짓과 포학을 더한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나 애굽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말씀!
- 만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당한 방법, 헛된 계획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 참고: 고후 6 장 14-16 절
“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2)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 절)

- 우선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키고,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음.
- 곧 당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세가 남아 있기에 잘잘못을 따지시는 정도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으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행한 패역한 행동들이 넘치기에 이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갚으실 것이란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
• 참고로 복음은 구원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한번에 포함된 하나님의 선언!!

3) 특별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하시며,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패역함을 책망하셨습니다. (3-5 절)

- 그럼 우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조상 야곱에 대해 언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의 자손들이라 여기면서 온갖 자만과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음!!

- 따라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조상 야곱이 누구이며,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①. 야곱의 출생 => 그는 태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자!

- 창세기 25 장 26 절의 사건을 배경.
- 참고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장자권을 다투던 아이였음을 의미한 말!!
- => 참고: 새번역 성경은 ‘형과 싸웠으며’로 번역, CEV.은 ‘Even before Jacob was born, he cheated his brother’ 로 번역
- 곧 하나님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아셨고, 장자권에 대해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

②. 야곱의 장년 =>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한 자!’

- 창세기 32 장 22 절 이하에 기록된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을 배경.
- 이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써 인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간구하게 되는 그에게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
- 곧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한 사건임!!

③. 하나님은 어디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축복하셨다고 했나요? => 베델!!

- 특별히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두 번 만나 주셨음!!
- a) 야곱이 형을 숙여 축복을 빼앗은 후 도망칠 때,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셨음! (창 28 장)
- b)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 강간 당한 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비롯한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복수를 행하여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고, 야곱은 베델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 (창 35 장)
- =>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에게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명하시고,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언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며 축복하셨음!!

➤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스스로를 이와 같은 야곱의 자손이라 자랑하면서도, 정작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교만과 자만함에 빠진 채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경건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며 이방 민족들을 따르고 의지했다는 것!!

4) 호세아 선지자는 조상 야곱을 저들이 진실로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6 절)

▪ 여기서 특별히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호세아의 말을 주목하자!

- 우선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중 하나!!
- 곧 참된 회개는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북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7-14 절)

1) 특별히 하나님은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악을 행하는 장사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7 절)

- 7 절: 저들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책망하심!
 - 우선 저울은 공평과 공의를 상징하는 것!!
 - > 참고로 율법은 항상 공평한 저울 추를 사용할 것을 강조!! (레 19:35,36;신 25:13-16).
 - 그런데 저들은 그 저울 자체를 거짓되게 하여, 사람 속이기를 즐거워하였다는 것!!
 - > 곧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악한 장사꾼들이었음!!

2)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었나요? (8 절)

- ①. ‘나는 실로 부자다’ 라고 스스로 자축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음!!
 - > 곧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난 삶을 겸손히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일함만을 즐기며 자축함!
- ②.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 > 오늘의 평안과 기쁨과 풍요는 다 자신들이 이룬 것이라 착각!!
- ③.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 낼 자 없으리라’!!
 - > 설령 선지자들이 말하는 죄가 사회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조금도 상관없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음!!

3)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셨나요? (9 절)

- 9 절 =>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 여기서의 명절날은 초막절을 가리키는 말.
 - 참고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무사히 장막 속에 거하며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레 23:39-44)
 -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다시 거론하시며 저들이 과거 출애굽 시대처럼 고난과 시련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

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비유를 많이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절)

-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나요? (11 절)

- ①. 길르앗은 불의를 행하며 거짓되었음!!,
 - 우선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아름다운 수목이 우거진 고원/목장지대
 - 그런데 호세아는 이곳이 이제는 행악자들의 고을이 되었다고 6 장 8 절에서 지적함!
- ②. 길갈에서는 우상 숭배가 넘쳐남!!
 - 길갈은 요단 서편 지역으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년만에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12 기념석을 세우며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며 서약한 곳!! (수 4:19 절~)
 -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는 곳이 됨!!

5) 하나님은 다시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사건을 되새기게 하시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버렸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12-14 절)

- 우선 12 절에서 하나님은 조상 야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심!!
 - 그는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양을 쳤던 자’
 - 곧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 (밭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도망자였고, 아내를 얻기 위해 삼촌을 섬기며 그의 양을 쳤던 어리석고, 나약한, 또한 약삭빠른 양치기였음!
 - 그런데 그런 야곱을 택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
-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며 경배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이 부자된 것은 다 자신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자신들의 삶에는 그 어떤 잘못도 없다고 스스로 자신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다는 것!!
-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신을 ‘격노하게 만든다’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며, 결국 저들의 피로 그 잘못을 갚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중보기도 나눔